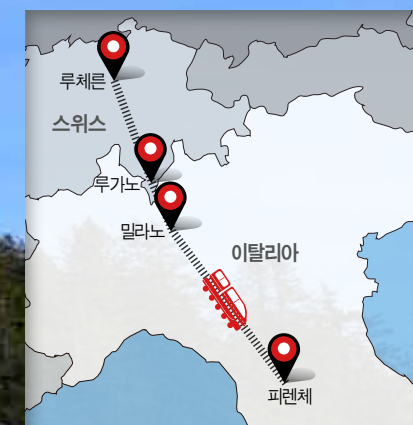


유레일 티켓 한 장 들고 떠나는

스위스 이탈리아 여행

동화처럼 예쁜 풍경을 감상하고
중세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여정이었다.
스위스~이탈리아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 밖으로 씬 없이 펼쳐지는 눈부신
풍경이 차창을 가득 채웠다. 열차가
지나는 도시들은 저마다의 매력으로
여행자의 오감을 자극했다. 지난 4월
유레일 티켓 한 장을 손에 들고 두 나라
네 개 도시를 돌아봤다.

글·사진 임동근 기자 취재협조 유레일 한국홍보사무소





1

+ 스위스

I
루체른

낭만 가득한 청정 호반 도시

누구나 인정하는 스위스의 첫인상은 깨끗함이다. 청정한 산과 호수, 초원은 눈을 말끔하게 씻어주고, 투명한 공기는 폐부 깊숙한 곳까지 정화한다. 루체른은 스위스의 청정함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사위가 어둡한 평일 이른 아침 루체른의 풍경은 조금 분주했다. 도로에서는 자동차와 버스, 트램이 앞다퉈 지나고 말쑥한 차림의 사람들은 바쁘게 발걸음을 옮겼다. 루체른의 아침은 어느 도시처럼 그렇게 부산스러웠다. 루체른 호수 너머로 태양이 높이 떠오르자 인구 8만여 명의 도시는 더 북적거렸다. 이번엔 관광객 때문이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이들이 관광 명소는 물론 거리와 기차역, 선착장을 뱅뱅하게 메웠다. 지난밤 취리히공항에서 열차로 1시간 12분 만에 도착해 만났던 고요하고 평화로운 루체른은 사라지고 없었다.

중세 옛보는 루체른 도보여행

호수를 마주하는 루체른 문화센터에서 도보 관광을 시작했다. 루체른 문화센터는 1938년부터 시작한 유서 깊은 고전음악 축제인 '루체른 페스티벌'이 열리는 곳. 매년 세계적인 클래식 뮤지션들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한다. 문화센터 앞으로는 호수가 아침 햇살에 은빛으로 반짝인다. 호수에는 스위스 깃발을 단 유람선이 지나고, 하얀 백조는 물 위에 떠다니며 우아함을 뽐낸다. 흰 눈 덮인 봉우리들이 푸른 호수를 두른 풍광에 숨이 멎을 듯하다. 체스넛트리가 도열한 호숫가에서는 사람들이 그림엽서 같은 풍경을 배경으로 여유를 즐긴다.

호숫가를 벗어나 골목길로 들어서면 두 개의 고딕양식 첨탑이 하늘로 치솟은 호프교회가 나타난다. 교회 안에는 4천950개의 파이프로 만든, 스위스 최고의 음색을 자랑한다는 파이프로르간이 설치돼 있다.

호프교회 인근 작은 공원에는 세계적인 기념물로 꼽히는 '빈사(瀕死)의 사자상'이 있다. '빈사'는 거의 죽게 된 상태를 뜻한다. 둥그런 초록 빛깔 연못 뒤로 거대한 회색의 암벽 가운데 움푹



2

1 스위스 국기를 단 유람선 2 첨탑 우뚝한 호프교회 3 호프교회 앞 거리 풍경 4 빈사의 사자상 5, 6, 7 무제크 성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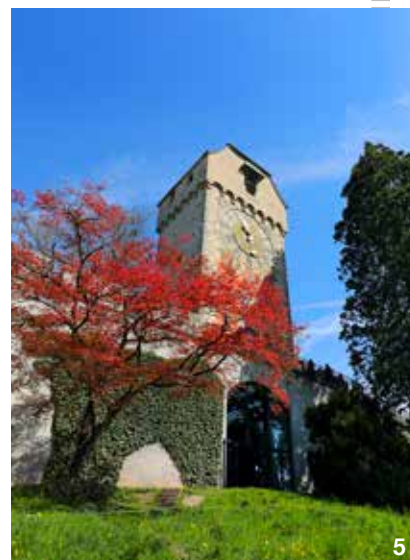
4

팬 곳에 수사자 한 마리가 죽어간다. 이 부조는 프랑스혁명 때 루이 16세를 지키다 전사한 스위스 용병 786명을 기리기 위해 1821년에 만든 것이다. 사자 머리맡에 열십자가 새겨진 스위스 용병의 방패가 놓여 있고, 앞발 아래에는 부르봉 왕가의 문장인 백합이 새겨진 방패가 보인다. 등에는 살갓을 깊이 파고든 부러진 창이 꽂혀 있다. 고통이 가득한 사자의 표정은 보는 이의 가슴을 아리게 할 정도로 사실적이다.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세계에서 가장 슬프고도 감동적인 바위"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공원 뒤편으로 상업지대와 주택가를 지나 비탈을 오르면 무제크 성벽이 도로를 비스듬히 가로지른다. 14세기 루체른을 방어하기 위해 마을을 둘러 축조한 도시성벽으로 지금은 약 900m만 남았다. 성벽을 따라 난 계단을 오른 후 망루를 통해 성벽에 오르지 눈부신 푸른 하늘 아래 갈색 지붕이 뺨뺨한 도심과 초록빛 호수, 멀리 눈 덮인 필라투스(해발 2,132m)의 웅장한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무제크 성벽에서 10분 정도 걸어 내려가면 구시가다. 이곳 광장과 골목에 있는 건물에는 프레스코 기법으로 채색된 화려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 기독교 성경 속 가나의 혼인 잔치, 에덴동산에 있는 선악과나무를 감싸고 오르는 뱀, 중세의 기사 등 다양한 그림이 눈길을 끈다. 광장에는 기사의 조각이 새겨진 음수대도 있다. 루체른에는 이런 음수대가 220개나 있다고 한다.

구시가를 벗어나 로이스 강변으로 내려서자 루체른의 랜드마크인 카펠교가 모습을 드러낸다. 성벽의 일부로 지어진 길이 200m의 카펠교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다리다. 들보에는 스위스와 루체른의 역사, 도시 수호 성인의 일대기를 담은 그림 110점이 걸려 있다. 카펠교는 어둠이 내린 후 가장 멋지다. 불 밝힌 다리가 수면에 반사돼 영롱한 분위기를 전한다. 강변 노천 주점의 탁자 하나를 잡고 앉아 맥주를 들이켜면 낭만은 배가 된다.



5

6



7





1 화려한 그림으로 덮인 구시가 2 로이스 강변에 있는 교회 내부
3 루체른의 랜드마크인 카펠교 4 조각이 새겨진 음수대
5 리기산 정상 6 리기산 등반열차 7 리기산으로 향하는 열차에서의 창밖 풍경



초록빛 세상 발아래 펼쳐지는 리기

루체른 주변으로는 '산들의 여왕'이라 불리는 리기(1,797m), '악마의 산'이란 별칭의 필라투스(2,132m), 스위스 중부에서 가장 높은 티틀리스(3,239m) 등이 포진해 있다. 이 중 리기는 루체른을 방문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다.

루체른 역에서 기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아트-골다우 역으로 이동했다. 이곳은 리기산으로 가는 3개의 관문 중 하나. 두 량짜리 하늘색 산악열차에 오르면 얼마 후 기차가 서서히 비탈을 오른다. 커다란 차창 밖으로 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민들레꽃이 초록빛 들판을 노랑게 뒤덮은 목가적인 풍경이 스쳐 지난다. 고도가 높아지면서 창밖은 들성들성 눈이 덮인 산악 풍경으로 바뀐다. 멀리 흰 눈을 머리에 이고 있는 알프스의 봉우리들도 보인다.

산악열차는 리기의 마지막 역인 해발 1천750m의 리기쿨름 역에서 멈춘다. 기차를 나서면 차가운 기운이 옷 속으로 파고든다. 불과 1시간여 전 반소매를 입을 정도였던 루체른 시

내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기차역 뒤편 언덕을 오르자 멀리 설산이 웅장함을 뽐내고, 반대편으로는 초록빛 들판, 진초록 숲, 맑은 호수가 발아래 펼쳐진다.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한 정거장 아래 역인 리기 슈타펠까지 걸어 내려가는 것도 좋다. 내리막길을 천천히 걸으며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주변 풍광을 만끽할 수 있다.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리기 슈타펠에 있는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나 맥주를 마시면서 설산을 감상하는 기분이 꽤 좋다.

취재협조 Luzern Tourismus AG-Tourist Board(www.luzern.com)





2
루가노

‘대문호’ 헤르만 헤세가 머문 티치노의 소도시

스위스 남부 티치노주에 있는 루가노는 인구 6만8천 명의 소도시다. 잔잔한 호수를 마주한 이곳에서는 호반과 좁은 골목을 따라 걷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독일 대문호 헤르만 헤세의 자취도 찾을 수 있다.





루가노는 루체른에서 남쪽으로 자동차로 2시간 거리에 있다. 하지만 두 도시 사이에 있는 멋진 경치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루체른~플뤼엘렌~루가노로 이어지는 루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동시간은 두 배가 훌쩍 넘지만 아름다운 풍광과 휴식 같은 시간을 약속한다. 루체른에서 유람선에 오르면 플뤼엘렌까지 유유자적 이동하며 호수와 설산이 이룬 맑은 풍경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다. 유레일 패스 이용자는 예약비만 내면 유람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플뤼엘렌에서 루가노까지 2시간 가리는 풍경 열차인 고타드 파노라마 익스프레스를 이용한다. 천장 좌·우측과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거대한 계곡의 수려하고 아찔한 풍광을 눈에 담을 수 있다.

아기자기한 도심과 공원

루가노에 도착하자 기온이 훌쩍 높아졌다. 마치 여름을 느끼게 한다. 또 달라진 것이 있다. 말이 독일어에서 이탈리아어로 바뀌었고, 건물 모양과 음식도 이탈리아식이다. 거리마다 빠르고 경쾌한 이탈리아어가 컷가를 울렸다. 현지 가이드인 패트리샤는 "루가노는 알프스 북쪽과 달리 이탈리아어를 사용하고 건물도 이탈리아식"이라며 "알프스는 지금도 두 지역의 왕래를 제약하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루가노의 중심지는 호수 북쪽의 왼편에 형성돼 있다. 음식점과 카페가 즐비하고, 작은 광장 주변으로 쇼핑가가 있다. 비좁은 골목을 따라 걸으면 파스텔톤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을 볼 수 있고 식당에서 새어나오는 피자, 파스타 등의 구수한 냄새가 식욕을 자극한다. 특히 햇



5

별이 좋은 날에는 '콘트라스트의 도시'라는 별칭에 걸맞게 빛과 어둠이 명확한 풍경이 시야를 채운다. 도심 동쪽으로는 호수를 바라보는 초록빛의 차이나공원이 있다. 규모는 루가노의 도심과 거의 비슷하다. 공원에는 고풍스러운 이탈리아식 건물과 자연사박물관, 도서관이 들어서 있다. 이곳의 백미는 호반 산책로. 평화로운 호수를 배경으로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과 초록 빛깔 나무가 마음에 안식을 가져다준다. 산책로 끝에 있는 양증맞은 모래사장에서는 수영복 차림의 사람들이 일광욕하며 쉬고 있는 평온한 일상도 엿볼 수 있다. 루가노를 보면 꽤 가파른 비탈에 집들이 들어서 있다. 어찌자고 저런 곳에 집을 지었나 싶지만 경치는 좋을 듯하다. 루가노의 전경을 감상하려면 비탈의 끝에 있는 몬테 브레 또는 몬테 산 살바토레를 방문해야 한다. 푸니쿨라(산악기차)를 이용해 꼭대기에 오르면 호수가 발아래 펼쳐지는 시원한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헤세의 숨결 잇는 몬타놀라

도심에서 버스로 15분 정도 가면 닿는 몬타놀라는 비탈에 들어선 집들과 골목 풍경이 예쁜 시골 마을. 특히 '데미안' '유리알 유희' '수레바퀴 밑에서' 등을 쓴 독일 문호 헤르만 헤세(1877~1962)가 42세부터 약 40년간 머물다 세상을 떠난 곳으로 유명하다. 헤세는 몬타놀라에서 그토록 원했던 평화를 찾았다고 전한다. 헤세가 살던 집 인근 4층짜리 건물이 헤세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박물관은 헤세가 1919년부터 알프스 남쪽에서 보낸 40년의 세

월 속으로 방문객을 인도한다. 건물 정면을 보면 페도라를 쓰고 동그란 안경을 낀 노년의 헤세가 사진 속에서 묘한 눈길로 방문객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엽서와 책, 기념품을 파는 공간을 지나면 헤세의 생애 속으로 떠나는 여행이 시작된다. 박물관에는 몬타놀라의 풍경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과 그가 그린 인물이나 풍경 스케치와 그림, 물감, 붓과 팔레트, 크레용 등이 전시돼 있다. 햇살 잘 드는 창가에 놓인 책상에는 헤세가 사용한 타자기가 놓여 있고, 한쪽에서는 그가 쓰던 페도라도 볼 수 있다. 몬타놀라에는 '헤르만 헤세의 길'이 있다. 생전에 그가 즐겨 걷던 길이다. 박물관 그림 속에 있던 풍경, 헤세가 살던 집 등을 볼 수 있다. 인적 드문 시골 마을의 길은 고요하고 평화롭다. 헤르만 헤세의 길을 모두 걸으면 2시간 3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 트레킹 루트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박물관에서 10여 분 걸어 내려가면 생아본디오 교회가 나타난다. 초록빛 들판에 사이프러스 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 도열해 있고, 그 끝에 높은 종탑을 가진 생아본디오 교회가 들어서 있다. 꽤 멋진 풍경이다. 교회 맞은편에는 생아본디오 묘지가 있다. 헤세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묘지 한쪽 그의 이름과 생몰 일자가 새겨진 조그만 사각형의 비석 앞에는 꽃이 핀 작은 화분 2개가 놓여 있었다.

취재협조 Ente Turistico del Luganese(www.luganoregion.com)



7



8



9

과거와 미래가 함께 숨 쉬는 도시

이탈리아 북부의 밀라노는 세계적인 패션 중심지이자 두오모 성당, 스칼라 극장, 스포르체스코 성 등 유서 깊은 건축물이 즐비한 곳이다. 최근 독특한 건물이 들어서며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는 포르타 누오바(Porta Nova)도 있다.



루가노에서 기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밀라노는 이탈리아 북부의 최대 도시다. 중세와 현대의 웅장한 건축물이 도시를 장식하고 패션 도시답게 중심가 거리에서는 모델처럼 잘 차려입은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밀라노에서 가장 먼저 돌아본 곳은 밀라노의 주요 상업지구 중 하나인 포르타 누오바. '새로운 문'이라는 뜻으로 이 지역에 1810년 세워진 '네오클래식 게이트'에서 이름을 따왔다. 보행자지구로 유럽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고 한다.

가장 큰 볼거리는 이색적인 모양으로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빌딩들. 유니크레딧타워(231m)를 비롯해 팔라조 롬바르디아(161m), 피렐리타워(124m), 보스코 베르티칼레(112m, 80m) 등이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아름답게 한다. 이들 빌딩은 모두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손길이 묻은 작품들이다. 포르타 누오바 지역 중앙에는 이탈리아 여러 건축가 가에 아울렌티(1927~2012)를 기념하는 원형 광장이 있다. 아울렌티는 파리 오르세 미술관 내부를 혁명적으로 바꿔놓은 인물로, 가구 디자이너로도 잘 알려졌다. 점심때면 이곳에서 일하는 직장인과 관광객은 광장 벤치에서 눈부신 햇볕을 쬔며 여유를 즐긴다.

이곳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물은 '수직 숲'이라고 불리는 보스코 베르티칼레. 112m와 80m 빌딩 두 동으로 이뤄져 있는 아파트로 빌딩 전체



- 1 포르타 누오바 지역의 고층빌딩들
- 2 밀라노 곳곳을 연결하는 트램
- 3 높이 231m의 유니크레딧타워
- 4 스포르체스코 성 인근 쇼핑가



5 포르타 누오바의 가에 아울렌티 광장
6, 7 스포르체스코 성



가 숲을 이루고 있다. 크고 작은 780그루 나무와 빌딩 표면을 뒤덮은 1만1천 개의 피복 식물, 5천 개의 관목이 빌딩을 빼곡하게 뒤덮고 있다. 태양광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사용한 물은 식물에 주어지는 친환경빌딩이란 점도 흥미롭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축물 기행

포르타 누오바 남서쪽에는 웅장한 외관을 자랑하는 스포르체스코 성이 있다. 14세기에 처음 궁전으로 건축됐고 15세기에 방어를 위한 성채로 증축된 건축물로 한쪽 면의 길이가 180m에 달하고 성벽 두께는 7m에 이른다. 네 귀퉁이에는 원형 탑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15~16세기에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를 비롯한 유명 예술가들이 성을 방어시설로 꾸미는 데 참여하기도 했다. 성문을 들어서면 광활한 정원 둘레를 2층 건물이 둘러싸고 있다. 현재 성은 박물관으로 사용된다. 주목할 볼거리는 미켈란젤로의 '론다니 피에타'. 예수의 시신을 안고 슬픔에 잠긴 마리아를 묘사한 미완의 작품이다. 이집트와 선사시대 유물을 전시하는 고고학 미술관, 이탈리아 회화를 볼 수 있는 미술관도 있다. 성 주변 잔디밭에서는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버스킹 공연도 볼 수 있다. 스포르체스코 성 동쪽으로 고풍스러운 쇼핑가를 지나면 밀라노의 상징인 두오모(밀라노 대성당)가 모습을 드러낸다. 두오모는 집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로 이탈리아에서는 '대성당'을 의미한다. 가톨릭 성당으로는 성 베드로 대성당과 스페인 세비야 대성당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는 이 건축물은 너무 미려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할 정도다. 미술사적으로 가장 조화로운 고딕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다. 섬세하게 만든 조각과 부조, 경외하듯 솟은 무수한 첨탑 등 모든 것이





1, 4 미려한 밀라노 두오모 2 두오모 앞 광장의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청동기마상 3, 5 두오모 인근 아케이드 쇼핑몰



6 스칼라극장 박물관 간판 7 화려한 스칼라극장 내부 8 스칼라극장 박물관에 걸린 베르디의 초상화 9 폴디 페츨리 박물관의 갑옷 전시장 10 폴디 페츨리 박물관에 전시된 보티첼리의 '성모와 아기 예수'



경이롭다. 수많은 조각 중 가장 유명한 것은 가장 높은 첨탑에 서 있는 '마돈나'. 3천900장이 넘는 금박으로 덮여 있어 황금빛으로 빛난다. 성당을 마주하며 광장에 선 사람들은 한참을 바라보고도 쉽게 눈길을 돌리지 못한다.

흥미로운 스칼라 극장과 폴디 페츨리 박물관

두오모 왼쪽으로 세계적인 고급 브랜드가 입점한 십자 모양 아케이드 쇼핑몰을 거쳐 북쪽으로 가면 성악가들의 꿈의 무대인 스칼라 극장에 닿는다. 세계적인 오페라가 초연돼 전 세계로 퍼져나간 오페라의 성지이다. 외관만 보면 작고 초라해 조금 실망할지 모르지만 극장 내부는 유명세만큼이나 무척 화려하다. 2층 로비에서 이탈리아 출신 거장 지휘자 토스카니니의 두상과 인사를 나눈 후 관람석으로 들어가면 무대와 붉은색 객석이 한눈에 들어온다. 극장의 전체 모습은 마치 장미꽃이 화사하게 피어 있는 듯하다. 극장을 돌아본 후에는 박물관을 돌아볼 차례. 1913년 설립된 박물관에는 이탈리아 오페라에 관한 모든 것이 전시돼 있다. '라보엠' '나비부인'을 만든 푸치니를 비롯해 베르디, 로시니,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 등의 초상화와 조각상이 전시돼 있고 오페라에 쓰이는 무대의상과 장신구, 책과 자료 등을 볼 수 있다. 박물관에서는 비디오로 오페라도 감상할 수 있다. 스칼라 극장에서 몬테나폴리오네 가리를 따라 걷다 보면 폴디 페츨리 박물관이 나온다. 미술품 수집가인 잔 자코모 폴디 페츨리 가문의 수집품이 전시돼 있는 곳이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대표 화가인 보티첼리의 '성모와 아기 예수', 베네치아 화파의 창시자인 조반니 벨리니의 '이마고 피에타티스', 마르틴 루터와 그의 아내 카타리나의 초상화 등 유명한 성화와 조각들, 바로크 시대의 화려한 금장 시계와 장신구, 나침반 등이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기사들의 갑옷과 창, 칼, 방패를 전시한 공간도 있다.

취재협조 이탈리아관광청(www.italia.it), 밀라노관광청(www.comune.milano.it)



역사와 소설이 살아 숨 쉬는 야외 박물관

밀라노에서 다시 남쪽을 향해 기차로 1시간 40분을 달리면 도착하는 피렌체는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다. 르네상스 시대의 건물과 거리 곳곳에 서 있는 조각품, 다리 등 하나하나를 허투루 볼 수 없다. 댄 브라운의 소설 '인페르노'의 주요 무대도 바로 이곳이다.

세계 최고 여행지답게 피렌체에는 여행자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피렌체 역부터 10분 거리의 숙소까지 가는 동안 커다란 트렁크를 끌거나 배낭을 멘 여행자들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긴 행렬을 만든다. 거리와 광장마다, 유적지마다 축제라도 벌어진 듯 인산인해를 이룬다.

피렌체 여행은 두오모에서 시작된다. 정식 명칭은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으로 '꽃의 성모교회'라는 뜻. 회백색 외벽과 붉은 돔이 화창한 하늘빛과 어우러지며 아름다움을 뽐낸다. 그야말로 꽃이 핀 듯하다. 성당 내부에서는 화려한 프레스코화와 모자이크를 볼 수 있고 463개의 계단을 따라 옥상 전망대에 이르면 붉은 지붕으로 뒤덮인 중세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두오모 바로 옆에는 4세기에 세워져 11세기에 재건된 피렌체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 건축물인 산 조반니 세례당이 있다. 피렌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세례를 받던 곳으로 시인 단테도 이곳을 거쳤다. 이곳은 화려한 부조가 새겨진 청동 문이 유명하다. 특히 미켈란젤로가 '천국의 문'





이라고 칭한 동쪽 문에는 구약성서의 여러 장면을 담은 부조가 담겨 있다. 두오모 남쪽 골목 안쪽에는 단테의 생가도 있다. 두오모에서 남쪽으로 골목을 따라가면 오르산미켈레 성당을 지난다. 원래 곡물 창고로 사용됐다는 이곳은 14세기 상인과 시민이 중심이 된 길드 정부가 기득권 세력인 주교와 귀족에 저항한 곳이다. 외벽에는 당시 길드 수호성인의 조각 복제본이 들어서 있다. 다양한 벽화로 화려하게 치장된 내부에서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그림이 걸린 감실을 볼 수 있다.



- 1 피렌체 두오모
- 2 산 조반니 세례당의 청동 문
- 3, 4 오르산미켈레 성당
- 5 베키오 궁전
- 6 우피치 미술관 앞 거리



눈앞에 펼쳐지는 르네상스 시대

골목을 빠져나오면 시뇨리아 광장. 웅장한 베키오 궁전, 교과서나 책에서 봤던 르네상스 시대 조각들이 서 있는 피렌체의 중심이다. 13세기에 건축된 베키오 궁전은 16세기에 메디치가(家)가 거처를 피티 궁전으로 옮길 때까지 사용했다고 한다. 메디치는 15~16세기 피렌체공화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가문으로 학문과 예술을 후원해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미로처럼 내부가 복잡하고 방이 많은 궁전에는 미켈란젤로, 도나텔로, 바사리 등 유명 미술가들의 작품이 가득하다. 이곳에서는 영화 '인페르노'가 촬영되기도 했다.

궁전 입구에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과 헤라클레스 조각상이 서 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비드는 지혜를, 헤라클레스는 메디치가의 힘을 상징한다고 한다. 피렌체에는 이곳과 미켈란젤로 언덕, 아카데미아 미술관 등 총 세 곳에 다비드상이 있는데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있는 것만 진품이다. 헤라클레스 상 뒤편 궁전 벽면에서는 미켈란젤로가 어린 시절 새긴 부조도 볼 수 있다. 다비드의 눈길에 머무는 궁전 맞은편에서는 '메두사의 머리를 든 페르세우스'가 서 있고, 광장 중앙에서는 넵툰의 분수를 볼 수 있다.

광장 바로 남쪽으로 우피치 미술관이 이어진다. 르네상스 시대의 걸작 회화와 조각품을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미술관 중 하나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티치아노, 안젤리코, 보티첼리 등 거장의 주요 작품을 볼 수 있다. 미술관 벽면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단테, 갈릴레오 갈릴레이 등 유명인 28명의 조각상이 설치돼 있다.



1 미켈란젤로 광장 인근에서 바라본 피렌체 도심 풍경 2 웅장한 외관의 피티 성 3 르네상스 양식의 산토 스피리토 성당 4 베키오 다리

낭만으로 물드는 다리와 광장

우피치 미술관 앞 거리를 빠져나오자 초록빛 아르노 강이 펼쳐진다. 강에서는 노를 저으며 한가하게 뱃놀이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다. 오른쪽으로는 강을 가로지르는 베키오 다리가 있다. 다리 위에 건물을 올린 독특한 모습이다.

베키오 다리는 1345년 건설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다. 원래 다리에는 푸줏간, 대장간이 자리했다고 한다. 그러나 1593년 토스카나의 대공이 악취가 코를 찌르고 시끄럽다며 이들을 추방하고 금세공업자들로 상점을 채웠다. 지금도 다리에 있는 상점에서는 화려한 금세공품이 판매되고 있다.

다리 위 건물은 작은 창문이 달린 통로다. 베키오 궁전과 우피치 미술관은 이 통로로 강 건너 피티 궁전과 연결돼 있다. 메디치가는 급할 때 피하기 위해 이 다리 위에 통로를 만들었다고 한다. 북서쪽에 있는 성 트리니티 다리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바라보는 베키오 다리와 강의 풍경도 꽤 그럴싸하다.

베키오 다리 건너에는 피렌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궁전인 피티 성이 있고, 궁전 정면으로 피렌체에서 가장 시원한 곳으로 알려진 골목을 지나면 산토 스피리토 광장에 닿는다. 광장 초입에 있는 르네상스 양식의 우아한 산토 스피리토 성당은 13세기에 건축됐는데 내부에서는 도나텔로, 산소비노 등 거장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특히 한쪽에는 미켈란젤로가 10대 후반 제작한 십자고상(十字苦像)이 걸려 있다. 이곳 광장은 밤이 되면 축제장으로 변한다. 피자, 파스타, 스테이크 등을 내는 맛집과 노천 주점에는 시민과 관광객이 모여들어 흥겨운 시간을 보낸다.

피렌체 여행을 마무리하기 가장 좋은 곳은 도심 남쪽 언덕에 있는 미켈란젤로 광장이다. 해 질 녘 또 다른 복제 다비드상이 있는 광장에 오르면 붉은빛으로 황홀하게 물들어가는 피렌체의 모습을 내려다볼 수 있다. ⑤

취재협조 이탈리아관광청(www.italia.it), 토스카나주관광청(www.visittuscany.com), 피렌체관광청(www.firenzeturismo.it), 피렌체 컨벤션 뷰로(www.destinationflorence.com)



INFORMATION



유레일패스로 유럽 여행 떠나기



사진 / 유레일 한국홍보사무소 제공



유레일패스(Eurailpass)는 유럽을 여행하는 데 유용한 기차티켓이다. 28개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는 글로벌 패스, 인접한 2~4개국을 선택해 여행할 수 있는 셀렉트 패스, 국가 한 곳을 집중적으로 여행하는 데 사용하는 원컨트리 패스가 있다. 유럽은 기차역이 도시 중앙에 위치해 관광이나 숙소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열차 창밖으로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휴식하며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유람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시티패스·호스텔 할인 등의 혜택도 있다.

특히 유레일 그룹이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레일 플래너'(Rail Planner)를 설치하면 사용자 주변의 기차역 검색, 유레일패스 소지자를 위한 국가별 혜택, 열차 출발·도착 시간 안내, 유럽 주요 도시 지도 제공 등 여행을 돕는 다양한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유레일패스는 유레일닷컴(kr.eurail.com), 한국 총판매대리점, 여행사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스위스·이탈리아 코스에서 묵을 만한 숙소



루체른 호텔 안커(Anker)

필라투스 광장에 자리한 호텔 안커는 1913년 세운 건물을 개보수한 부티크 호텔이다. 루체른 역에서 약 500m 떨어져 있어 걸어서 7분 정도 걸린다. 객실에서는 눈 덮인 필라투스를 조망할 수 있다.

www.hotel-restaurant-anker.ch/galerie/



호텔 시티 루가노(Hotel city Lugano)

유명한 건축가가 디자인한 라이프스타일 호텔이다. 루가노 기차역에서 도보로 15분, 루가노대학교에서는 5분 거리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다. 24시간 바를 운영하며 객실 내 미니바에 있는 음료와 차는 모두 무료다.

hotelcitylugano.ch/gallery/



밀라노 호텔 마닌(Manin)

스칼라극장, 밀라노 대성당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호텔로 바로 앞에는 녹음이 짙은 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쇼핑가까지도 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아름다운 정원과 멋진 야외 테라스를 갖췄다.

www.hotelmanin.it/en/gallery.html



피렌체 호텔 글랜스(glance)

피렌체 중심 가곡시장 인근에 있는 현대식 호텔. 산타마리아 노벨라 역에서 도보로 5분 정도 떨어져 있다. 베키오 다리, 대성당까지는 걸어서 10분 가량이다. 피렌체 전경을 볼 수 있는 루프톱 수영장이 있다.

www.glancehotelflorence.com/en/